

## 젠더의 관점에서 본 농촌의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의 문제

임 춘희\* · 송 인하\*\*

### 초 록

현재 농촌에서는 여성들의 인구비율이 높으며 공동체 내의 사회자본 축적에 대한 기여도가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젠더레짐은 여전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외부와의 연계성에 의한 사회자본의 형성에는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의 외부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남성의 역할로 당연시되는 마을내의 젠더 불평등의식의 대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젠더레짐으로 설명하면서 마을만들기운동같은 마을공동체운동에서 젠더레짐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여성들이 사회활동이나 사회적 연계망이 제한되어 있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운동의 목표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가치관의 재조직화에 있다고 볼 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비민주적인 지배이데올로기의 하나인 젠더의식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마을공동체운동의 성과는 여성의 입장을 배제한 절반의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 재구조화운동에서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교육과 사회화에 있어 젠더의 관점과 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결과로 현재 농촌의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에서 양성평등을 통한 지역의 발전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젠더, 젠더레짐, 공동체재구조화운동, 마을만들기운동

\*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chlim@kusan.ac.kr)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singasong777@gmail.com)

## I. 서론

현재 한국 농촌사회의 인구구성의 변화경향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여성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증가로 표현할 수 있다. 여성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농촌인구의 51.6%, 농업인의 53.3%(통계청, 2008)를 차지하며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존재로 그 중요성과 비중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농촌의 젊은 남성들이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여성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생산노동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사회화된 성역할로 인하여 생산노동에의 참여와 가사노동의 전담이라는 이중부담(double burden)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성들과 같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가사노동은 남성들과 분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젠더불평등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나 현재에도 여전히 농촌 지역사회의 재구조화과정에서 젠더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농촌 주민들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당연시하기 때문으로 그 결과 젠더불평등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의 마을만들기운동은 과거의 중앙정부주도의 새마을운동과는 성격과 운영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얼마나 진일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젠더불평등의 재생산은 구성비율이 높은 농촌의 여성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며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운동의 목표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가치관의 재구조화에 있다고 볼 때(송인하, 2010),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비민주적인 지배이데올로기의 하나인 젠더의식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마을공동체운동의 성과는 여성의 입장을 배제한 절반의 효과에 그칠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 재구조화운동에서 젠더의 문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교육과 사회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과 사회화가 이루어질 때 성 평등을 통한 농촌지역발전의 성과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촌운동에서의 젠더의 문제를 현재 다양한 농촌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운동을 중심으로 젠더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젠더레짐으로 인해 여성이 배제되는 문제와 사회자본축적에서의 성별차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마을공동체의 재구조화를 살펴본 후, 특정한 농촌지역의 예를 중심으로 그 농촌지역에서 젠더에 의한 지배방식 곧 성불평등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마을공동체의 재구조화에서 젠더의 관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젠더레짐과 여성의 배제

현재 한국농촌의 가족집단의 성격에는 전통성과 현대성이 혼재하고 있다. 아직도 남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고정화되어 있으며 젊은 생산인구층 남성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여성이 농업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사 및 육아노동 등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농촌 여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졌던 것들을 계속해서 전담하면서 그에 더하여 농업생산 활동도 도맡아서 해야만 하는 이중부담의 고충 속에 놓여있다. 현대에 있어서 여성의 이중부담(double burden)은 여성의 유급노동의 참여는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증가하지 않은 현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여성들이 가정경제에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사분담 시간이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하에서 주부로서의 역할기대가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수정과 김은지, 2007:170).

여성의 이중부담 문제는 젠더 및 젠더레짐과 관련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젠더는 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별차이가 사회화를 통해

학습되고 강화되며 사회적으로 구성원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다. 젠더레짐은 젠더에 의해 통치되는 방식을 나타내며 여기에 권력관계가 존재한다(원숙연, 2002: 537- 540). 이처럼 생물학적인 성이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역할 수행의 근거가 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적 행위가 규제받는 지배의 문제와 결부된다. 익숙한 습관에 의하여 한 성의 집단이 다른 성의 집단을 사회적, 정책적, 제도적으로 구분하거나 차별 또는 배제함으로써 지배하게 되는 방식을 ‘전통적 젠더레짐’이라 부르고자 한다.

성불평등이 전통적으로 또는 관습에 의해 존재하는 경우 ‘전통적 젠더레짐’에 의한 지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현 한국농촌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 같은 성불평등은 가부장적인 지배와 그 가치가 배태된 관행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사회적으로 배제된 결과이다.

현대국가는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법의 제정을 통하여 형식적 합목적성이 달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양성평등에 관한 근대적인 가치가 헌법에 의해 적합하게 강구되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인 젠더레짐’과 관련된다. 형식적으로는 양성평등적인 제도화를 통하여 양성평등의 제도적 수단들이 합리적으로 결합된다. 여기서 양성평등에 관련된 제도화의 다양한 차원이-예를 들면 국가의 헌법, 그것의 하위 법률, 지방의 조례 등에서- 존재할 수 있다.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화는 합리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세계는 법에 의해서 똑같이 규율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는 여러 면에서 합리적인 젠더레짐과 전통적 젠더레짐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비합리적인 젠더레짐-성불평등에 기초한 통치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젠더 불평등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국가나 지역공동체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해소문제는 젠더정책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정책을 관통하는 젠더관계와 관련한 제도화된 유형이 존재한다. 제도화된 젠더정책은 특정국가의 정책 및 정책논리 속에서 발견되는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관행(gender practices) 및 양성 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국가정책 속에서 발견되는 젠더관계와 관련을 갖는다(원숙연,

2002:539-540).

그러나 제도화된 젠더정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젠더레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성차별은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차별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성차별철폐 노력은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법적·도덕적 압력 이상으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기회·자원 배분체계의 개혁을 요구한다(장경섭 외, 2004:22). 특히 정부의 성차별철폐 정책<sup>1)</sup>을 통해 젠더 평등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젠더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젠더의 관점에서의 미세한 사회 구조적인 분석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 2. 사회자본 축적의 성별 차이

현재 한국의 농촌마을은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진행된 지속적인 이농과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마을의 존속을 위협받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해체는 마을 내에 존재했던 다양한 집단들의 몰락과 궤를 같이 하는데 이것은 마을공동체의 사회자본의 약화 또는 마을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한다. 즉, 마을공동체에 존재하였던 두레의 소멸과 이식계 조직의 현저한 감소, 그리고 품앗이를 통한 노동력 교환의 빈도수의 감소, 기계화에 의한 농업노동의 생력화에 의한 공동체성원 간의 사회적

1) 남녀평등에 관한 법으로 남녀고용 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있지만 법과 실제 간에 큰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김엘림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시행이후 1999년 5월까지 11년간 각종 분쟁처리기관에 의뢰된 사건 수는 총 104건인데(이것도 중복사건을 제외하면 66건에 불과하다), 이중 법원에 제기된 것은 23건에 불과하다.

여성차별과 불평등문제가 결코 줄거나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의 내용이 현실의 차별실태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체에 의해 법 취지가 축소되고 왜곡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정 여성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이용해 현실의 남녀차별실태를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원이나 노동부 등의 해석에 의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이와 유사한 사건 모두가 법원 등에 제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 등의 경우 대부분이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남성으로서의 이해가 판단과정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사법적 결정과정은 집대성된 법적 규범으로부터 도출되는 추론적 사고의 논리적 과정이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감정에서 그리고 그의 신념과 성향에서 기인하는 개념들에 의해 안내를 받는 문화적으로 결정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심재진, 2002:116-119).

관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존재했던 노동이나 재화의 교환수단들이 현대적인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역 내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은 약화되었고 이는 공동체 내의 사회적 자본이 소멸되어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공동체 내부에서의 사회자본의 증가는 성원 간의 교류관계의 활성화에 따라 상호신뢰의 증가, 상호 의존성의 증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의 증대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외부와의 사회자본의 증가는 사회적 연결망의 확대로 설명할 수 있다. 공동체 내부의 사회자본의 축적이 크고 공동체 외부와의 교류가 개방적이고 활발할 때 공동체의 사회적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sup>2)</sup>

여성들의 인구비율이 높은 마을공동체 내에서 여성들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이는 곧 공동체 내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인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마을공동체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여성중심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 내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대외적인 일들을 결정하고 대표성을 가지는 문제는 여전히 남성들의 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자본의 성격이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마을의 내적 사회자본의 축적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마을공동체의 외적 연결망 구축은 남성의 역할이 기대되고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사회자본 축적의 구조형성에는 농촌사회에 잔존하는 여성을 길들이기 위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확대와 같은 전통적 젠더레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여성들의 사회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때 여성들의 진출이 당연시되어야 함에도

2) 공동체 내부의 사회자본축적이 크고 외부와의 연계성이 높은 경우 사회적 기회가 증가하는 공동체로, 공동체 내부의 사회자본축적이 크고 외부와의 연계성이 낮은 경우 가족주의적인 성격의 공동체로, 공동체 내부의 사회자본 축적이 작고 외부와의 연계성이 클 경우 아노미적인 성격의 공동체로 유형화할 수 있다(Woolcock, Michael, 1998).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여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젠더레짐에 주목한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 내에 축적된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여성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젠더지배이데올로기<sup>3)</sup>의 철폐가 필요하다. 실제 여성에 의해 축적된 사회자본은 남성에 의해 활용될 수도 있고, 또한 사장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유현숙 외, 2006: 334) 그리고 젠더의 문제는 사회의 민주화는 물론 그 발전적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사회활동의 지원과 각종 조직에서의 여성인력 활용 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자본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나 세계 가치조사(Inglehart, 1998)에서 여성 사회자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연구가 일부 있지만(Moore, 1990), 여성의 사회자본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정도의 연구일 뿐이다(박희봉·이희창, 2006: 127-128).

개인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양적 분석에서는 개인이 처한 부모의 교육 정도 및 지위, 소득 등의 가족 배경, 어떤 성격의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 왔는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 왔나 등의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박희봉·이희창, 2006: 132). 이러한 개인별 사회적 자본의 양적 분석은 인적자본이 큰 사람일수록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인적자본의 양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크므로 당연히 남성의 사회자본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단이 아닌 개인에 대한 사회자본의 양적 분석은 자칫 인적자본의 개념 및 내용과 유사하거나 혼동될 수 있다.

대체로 사회자본은 집단에 기초해 형성된다는 주장이 우세한데 가령, 지역범위에서의 한 조사연구(유현숙, 2005: 252-254)에서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심리적 자본 등을 성별에 따라 비교했는데 인적자본의 경우 남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자본에 있어서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사회자본에 관한 남녀의 차이 즉

3)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sex)에 기반하여 특정한 역할이 있다고 가정하거나 요구함으로써 남녀의 불평등한 현실과 지배관계를 은폐시키는 의식체계이다(이민주, 2004: 314). 여기서는 '전통적 젠더레짐'이나 '비합리적 젠더레짐'과 관련된다.

사회자본 축적에서의 기여 정도는 여성이 남성의 그것보다 낮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연구결과(박희봉과 이희창, 2006)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자의 연구가 지역적인 범주 내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했던 반면에 후자의 연구들은 지역이라는 변수를 무시하고 개인적 접근에서 진행된 연구라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자본 축적의 기여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대외연계성은 남성에게 의해 주도되고 있다. 사회자본에서의 이러한 성별차이와 그 결과로 나타난 성별불평등은 영역으로 분리되어<sup>4)</sup> 나타나고 있다.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도 지역주민의 가치관을 재조직하여 사회자본의 축적을 증가시켜 마을개발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전략의 하나이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한 공동체성원들이 공동체의 사회자본축적에 의한 상호 간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동체 내에 물적자원의 투입에 따른 개발은 성공적인 사회, 경제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회자본축적이 큰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성원들로부터 정당성에 기초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고 경제적 영역에서도 정당성에 기초할 때 마을공동사업에의 참여를 성원에게 의무감으로 촉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주민의 사회자본축적에 의한 통합과 자발적 참여는 마을개발사업에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남상화, 2009:154).

그러나 지역공동체에서의 사회자본의 이중구조는 지배의 정당성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전통적 젠더레짐에 의한 권력관계의 왜곡은 성원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역공동체의 자원투입에 대한 성과는 절반의 성공만을 기대할 수 있다.

### 3. 마을공동체의 재구조화

농촌마을공동체의 소멸과 해체를 우려한 정부나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최근 들어 농촌에 활력을 주며 농촌 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4) 이선미(2004)는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는 순수하게 자원적이지 않으며 구조적으로 성별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조적인 성별 불평등은 단순히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활동으로서 마을만들기운동<sup>5)</sup>을 들 수 있다. 그 중에는 주민들의 문제의식 속에서 자발적 성격을 띤 경우도 있고,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자발적 성격이 약한 경우도 있다(하민철, 2009: 179).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과거에 전통적 가치에 근거한 공동체운동과는 그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 현대의 공동체운동은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관의 형성과 마을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적극적인 활동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마을에 존재했던 공동체적 규범은 공동체의 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그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러한 규범에서 성원들간의관계에는 개인 자신이 정해진 규범을 지키면 타인도 그러하리라는 믿음 즉 신뢰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마을 성원들은 마을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의존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존재하며, 개인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개인화된 사회이다.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규범이 개인들의 행위를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개인화된 마을 성원들을 하나의 공통된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로 통합할 수 있을 때 현대적 의미의 마을공동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라 함은 공동체적 의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적인 속성들이 현재 마을공동체에 내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속성들은 구성원들 간에 활발한 관계망이 형성된 공동체적 속성들로 대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게 되면 신뢰가 쌓여 서로 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송인하, 2010).

5) 마을만들기운동의 목표는 지역에 따라서 또는 마을공동체마다 다양하게 설정되고 추진되고 있다. 그 목표가 공동체의 경제수익사업에 따른 - 가령 농산물 가공시설의 확충을 통한 수익목표에 지향해서, 기간시설의 정비에 의해서, 동종의 수익사업자들의 조직화에 의한 유통의 합리화를 위하여 -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마을의 경제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마을만들기운동은 마을주민들의 교육과 의식화를 통해 자발적이고 동기부여적인 내발적 발전(상향식 개발)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가치관의 재구조화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재구조화<sup>6)</sup>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가치관은 전통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것으로부터 합리적인 것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마을 공동체의 재구조화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앞에서 서술한 젠더의 관점과 관련지어볼 때 지역주민들이 전통적 젠더레짐에서 합리적 젠더레짐으로 가치관이 재구조화되는 것을 말한다.

성불평등철폐를 위한 추동력은 자아성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sup>7)</sup>,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회운동<sup>8)</sup> 그리고 교육을 통한 아비투스<sup>9)</sup>의 재구성<sup>9)</sup> 등 다양한 방향에서 나온다고 볼 때 마을공동체 운동에서 교육을 통한 아비투스의 재구성은 실천적 목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그러한 근거로 현재 공동체 재구조화운동에서의 주체인 공동체는 행정과의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sup>11)</sup> 그러한 협력과정에서 교육과정(curriculum)<sup>12)</sup>의 설정과 그 실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은 이익결사체에 의해서 그리고 행정체계에 있어서는 행정관료에 의해

6) 본 연구에서 '재구조화'의 의미는 기존 사회구조가 행위자에 의해서 항상 변화되어 가는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7) 기든스의 자아성찰성과 사회적 성찰성에 대한 논의와 일치한다. A. Giddens(1990, 1991))참고.

8)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Jürgen Habermas, 1981)을 참고.

9) 새로운 아비투스의 생산에 교육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양성평등의 장(합리적 젠더레짐)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성불평등의 장(비합리적 젠더레짐)과 경쟁, 갈등하게 될 것이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개념에 관해서는 Bourdieu, Pierre(1977)를 참고.

10) 한국 사회에서 남녀 평등에 대한 사회적 제도 및 정책은 양성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평등(equality)이라는 원리 아래 문제점을 제거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차별은 현재까지 유지, 재생산되어 왔다. 이러한 재생산과정에 공교육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교육이라는 체계모니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남성 중심 사회의 이데올로기 전수 및 재생산을 돕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 고정 관념이나 관행이 교육 정책과 제도, 교육과정에 그대로 스며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학교 교육은 기존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전수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젠더의 불공평성을 양산하게 된다(허창수, 2004: pp119-241).

11) 이 점에 관해서는 Woolcock, Michael(1998)의 논의를 참고할 것.

12) 교육과정의 의미는 교육과정을 수단으로 보느냐,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교육목적을 결정하고 교육내용을 선정·조직하며, 교육결과를 평가하는 절차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출처:브리태니커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2g1661a>).

제시될 수 있다. 행정체계가 민간단체의 조직보다 효율적인 관료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교육과정은 행정체계를 통해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문서화되거나 전문화된 교육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확정될 수 있다.

지역에 존재하는 결사체가 합리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또는 지역 행정조직과의 협치를 통하여 그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젠더불평등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이슈화는 젠더거버넌스와 관련된다.

젠더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사회에서의 젠더거버넌스<sup>13)</sup>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이념에 대한 계몽 내지 계발정책에 한정되어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쟁점화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정책의 수립이 지역별 여성문제를 실제로 부각시키고 쟁점화 하는데 있어서 그것의 성공여부는 해당지역의 여성들이 사회집단으로서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며 성숙되었는가에 달려있지만(남영우, 1997:4)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수준에서 젠더거버넌스의 출현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의 사회진출의 제약으로 인한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 III. 연구를 위한 면접과 관찰

#### 1. 조사지역의 개관

조사지역인 전북 진안군은 임야가 약 80%를 점하고 있으며 경작지는 약 13%에 불과한 지역이다. 인삼재배 면적이 타 군에 비해 높은 편이며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전형적인 산간지역이다.

진안군은 1978년 15,595가구에 인구수는 87,993명이며 2006년에는

13) 원숙연·박진경(2006:92)은 젠더거버넌스를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 관계를 완화 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련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관계구조라고 본다.

11,564가구 27,425명이 살고 있다. 한국의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표1 참조).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는 진정되었지만 아직도 인구수의 감소가 완만하게 지속되고 있다. 가구 당 인구수는 2.28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지 않아서 20년 이내에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마을의 해체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1〉 진안군 인구 추이

년도	인구총수	65세이상 인구수(비율)	인구증감율
1998	34,704		
2000	31,359	5,687(18.1%)	- 9.63%
2004	30,877	6,764(23.2%)	- 1.53%
2006	27,425	6,901(25.2%)	-11.18%

(출처: 진안군통계연보, 2010)

귀농인구는 2007년과 2008년 1년 동안 93가구 239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귀농인구수가 자연감소나 이농에 의한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성원의 충원으로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 농촌의 인구 재생산은 젊은 가구수의 비율도 적지만 젊은 남성들은 결혼상대를 찾기가 어려워 인구 재생산이 제약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성원의 충원은 외국인 신부나 귀농인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일부분 충원되고 있지만 전체 인구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진안의 여성인구는 2008년 27,497명 중 13,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의 여느 마을과 비슷하게 여성들이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역할에 따른 성차별이 많이 존재한다. 남자와의 임금차이도 크고 여성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누구의 아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장미경, 2008).

## 2. 조사대상자의 면접과 마을회의의 참여관찰

본 연구를 위하여 1차적으로 2010년 3월 30일부터 4월 9일 까지 약 9일간 3개 마을의 주민 9명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접한 내용은 녹취 후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2개 마을(진안읍 연장리 W마을과 부귀면 봉암리 M마을)의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일차 면접조사와 관찰을 마친 후 기록내용을 검토하면서 조사와 관찰에서 미흡했거나 궁금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10일과 11일 양일 간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추후면접을 하였으며 면접내용은 녹취 후 정리하였다. 면접과 참여관찰 이외에도 진안군 마을간사들에게도 연구관심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전화면담을 통해 연구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행정업무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해당 업무의 담당자와의 방문이나 전화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면접을 하였으며 면접시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에서 언제 남성과 여성을 구별 짓는가? (2) 마을사람들은 마을 일에서 어떠한 일을 여성의 일로 또는 남성의 일로 간주하는가? (3) 여성과 남성 중 어느 쪽이 마을사정을 더 잘 알고 있는가? (4)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이 마을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는가? (5) 마을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며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6) 마을사람들은 이장의 말을 잘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7) 현재 마을이장은 어떻게 선출되었나? (8) 여자가 이장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9) 일상에서 남성이 여성을 무시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10)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다고 가정하면, 누가 이장이나 마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안읍 연장리 W마을과 부귀면 봉암리 M마을을 조사지역으로 하였으며 면접조사의 대상자들은 동향면 학선리 H마을에 살고 있는 귀농자(여, 43세) 진안읍 P마을의 마을주민 중 2인(남, 45세, 남, 76세), W마을의 이장 겸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위원장 1인

(여,47세)과 마을간사 1인(여,40세), 봉암리 M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여,73세), 귀농자 1인(남,34세), 간사 1인(남,40세) 그리고 S마을주민 1인(남,53세)등으로 총 9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3명이고 남성은 6명이다.

W마을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마을 이장이 여성으로서 대부분 남성이 이장을 보는 마을과 젠더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 다른 조사대상마을인 봉암리 M마을의 이장은 남성이다.

주민 중에 귀농자를 포함시킨 것은 도시지역사회와 농촌의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질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가정에서 그러하였다. 농촌마을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남아 있어서 도시와는 다르게 귀농인에게 젠더문제가 부각될 수 있고 귀농 당시 이방인으로서 그러한 면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IV. 마을공동체의 젠더레짐과 공동체 재구조화운동에서의 젠더문제

##### 1. 마을공동체 내의 젠더레짐

다음에서는 앞서 언급한 조사지역에서의 참여관찰과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의 결과 그리고 현재 한국 농촌사회에서 젠더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에 존재하는 전통적 젠더레짐의 다양한 존재형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 젠더레짐은 마을공동체적인 사업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아무런 저항없이 가족 내 성역할의 연장선으로 뚜렷하게 작동되고 있었다. 진안군 W마을의 경우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들도 당연히 마을공동의 일을 가족에서의 성 역할의 확대로 생각한다. 따라서 마을의 공동취사노동은 당연히 여성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sup>14)</sup> 마을의 대소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의 장만과 그것의 서빙은 거의 모두 마을 부녀자들이 해결해야만 되는 노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음식의 조리나 손님을 접대

14)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한국 농촌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하기 위해 음식을 차려내는 일은 여성들의 일로 당연히 하는 관행<sup>15)</sup>을 엿볼 수 있다. 농촌여성의 고령화로 70대 여성노인들도 부엌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 그녀들은 적어도 그녀들의 부모세대에서는 그 연령대에 ‘앉아서 상차림을 받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 그녀들보다 나이가 적은 손님들을 위하여 ‘확대된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가사노동은 명백하게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해 사회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영역분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남자들은 부엌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된다’ 라든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OO 떨어진다’는 식의 표현에서 영역분리에 의한 성차별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태도는 그녀들의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교육되며 사회화되어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것이다.

다음의 예는 유교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공동체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W마을 사람들은 겨울철 농한기에는 마을회관에 모여서 점심과 저녁을 공동취사 형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남성은 부엌의 일을 도와준 적이 없으며 여성도 공식적으로 취사노동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

남자들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밥상 앞에 가만히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차림을 할 때 수저 놓기, 컵에 물 따라 놓기 등 간단한 것도 거들어 주지 않아요. 얼마 전에 아주머니 한 분이 남자들에게 컵에 물 따르는 것이라도 도와 달라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을 향하여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여,W마을 간사).

공동체 집단에서는 오히려 가부장제의 성격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 내에서 가사일을 도와주었던 어떤 사람도 집단 구성원들과 같이 있는 경우 개인의 행위는 집단의 분위기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 집단 속에서 개인은 내면화된 비합리적 젠더레짐에 의해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결국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즉 가정 내에서 아내가 하는 가사 일을 도와주었던 남편도 밖에서는 타인의 기대에

15) 관행은 조직으로 나타나며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행위양식이다.

따라<sup>16)</sup> 행동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가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어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밥을 먹을 때 방바닥에 신문지를 펴놓고 밥을 먹더군요. 남자들은 모두 밥상에서 먹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했지요. 어머니들도 남자들과 같이 상을 펴고 밥을 먹자고요. 그 때는 어머니들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을 때 방바닥에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H마을 귀농자).

농촌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가족내에서 가사노동이 분담되어야 한다. 외형적으로 농촌여성들은 여성들만의 일에 국한되어 성별분업화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과 직결되는 일에도 많이 투입되고 있다. 즉, 부부가족 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농촌여성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비중과 시간의 증가에 비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비중이나 역할은 감소되지 않았으며 단지 농업노동의 증가로 인한 가사노동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촌여성들이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으며 농업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농촌진흥청, 1999) 가사노동은 여전히 성 역할로 분담되고 있으며 여성들만의 책임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유소이 외, 2003: 158).

둘째, 마을 주민들이 중시하는 공동체적인 활동으로서 기제사 또는 시제사(묘제) 그리고 조상의 묘소 관리와 같이 남성중심의 친족 결속을 강화하는 행사나 노동은 여전히 전통적 젠더레짐의 재생산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여성은 남성중심의 행사나 노동에서 음식의 준비와 같은 ‘확대된 가사노동’ 형태의 중요하고 실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형식적이고 대표적인 절차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주변인같은 가족성원에 머무른다. 여성들은 결코 ‘친족집단의 성원’이 되지 못하며 그것과 관련된

16) 전통적 젠더레짐을 따를 것이라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의사결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기제사나 시제사가 형식적으로 그 의식적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친족의 범위는 변하지 않았으며, 남성중심의 친족행사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일들은 엄격하게 분담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친족범위 내에서 남성 중심의 정기적인 회합과 결속은 남성의 중심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는 반면, 여성입장에서는 ‘남성중심의 친족집단의 권력이나 위세’를 인정하게 되는 반복적인 학습효과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전혀 그러한 성격의 모임이 없다는 것과 친족의 중요한 행사에서 여성의 배제는 남성의 우월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레짐과 관련된다.

셋째, 현재 마을공동체 내에 있는 대표적인 여성단체는 젠더레짐을 오히려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현재 마을공동체 내에 있는 대표적인 여성단체로서 새마을부녀회<sup>17)</sup>는 박정희 정권하에서 여성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을마다 의무적으로 구성한 동원체계이다. 그것은 남성들에 의한 여성 노동력의 동원을 위한 하나의 조직이다. 지금까지도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부녀회의 기능 또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내의 성별분업을 제도화하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에서 ‘확대된 가사노동’의 성격과 관련된 일은 소위 부녀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그러한 성격의 일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남성이 주도적으로 여성이 해야 할 일로 규정해 버리고 여성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효율적인 여성동원의 수단인 부녀회 조직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오히려 유지,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마을부녀회와 같은 조직은 개발에 필요한 여성자원을 저렴하고

17) 새마을운동은 농민의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과정이 존중되지 않은 국가가 주도한 농민동원체계이다(김대영, 2004:182). 마을부녀회 조직은 국가에 의해 여성들의 무급 노동을 자원활동의 형태로 동원함으로써 조직운영의 물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부녀활동의 목표와 활동방향을 위로부터 강력하게 지도하는 방식으로 마을단위로 조직하였던 것이다. 부녀회 조직 등 지도사업이 강조되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의 사회참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모성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었다(황정미, 2001:181-182).

효율적으로 남성에 의해 동원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sup>18)</sup>

진안 마을의 사례로 볼 때도 현재의 마을부녀회는 마을공동체의 여성들의 지위개선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여성을 철저히 성별 분업화하여 동원하고 지배하려는 비합리적 젠더레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W마을이나 M마을의 경우도 예외 없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는 일은 부녀회를 통하여 마을의 여성들을 자연스럽게 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가령, 마을에서 해야 할 일 중에서 그 성격이 여성의 일로 판단이 되면 (가령, 마을잡초제거, 마을회관청소, 마을손님접대를 위한 음식장만, 마을공동 유람 시 음식준비 등) 남성들은 부녀회에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부녀회가 마을공동체내부에 존재하며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여성단체라고 한다면 마을공동체외부에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대외적인 명분만을 내세우는 형식적인 조직에 불과하다.<sup>19)</sup>

넷째, 농업생산과 관련한 농업경영체의 대표는 남성이 우선이며 남성이 없는 가정의 경우만 여성이 대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유교적 가부장성의 표현으로<sup>20)</sup> 남성이 우리 사회질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전통적 젠더레짐의 문제에서

18) 마을부녀회 조직과 관련하여 여성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때,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을 출범으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동원과 전달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황정미, 2001:183).

19) 진안군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연합회,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아이코리아, 생활개선회, 여성자원활동센터, 부녀소방대, 미용협회 등 11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여성단체들은 사회발전을 위한 공공적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여성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나 교양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장미경, 2008:325). 이러한 문제는 안성시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김경희, 2010)에서도 정부의 지역발전사업이 지역거주 여성을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시키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기획,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여성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0) 어촌사회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반 권리와 자격들(입호, 어촌계 가입, 조합원 가입, 어장분배 등)이 개인보다는 가구를 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가구의 대표권을 가진 남성들이 제반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것은 가족 내에서의 가부장적 요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다(이수애, 1993:41).

연유하고 있다.<sup>21)</sup>

현대 생활인은 누구나 제도화된 서비스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즉, 법적인 영역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복지수혜의 범위에서 그리고 제도화된 금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부여된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가에서 여성의 법적인 지위는 농가의 주부나 남성이 농업경영주가 되고 그 보조인으로서 여성농업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에서 주된 농업노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지위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농업 관련정책이나 보험과 같은 보상금산정에 관련된 경우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김경미 외 3인, 2003). 여성농업인이 단순한 노동제공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또는 남성과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sup>22)</sup>이 중요하다(허미영과 박민선, 2003).

다섯째, 현재 대부분의 영농교육프로그램이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영농기술이나 농기계운용 교육 등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은 노동강도가 큰 농업노동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영농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젠더레짐으로 인해 실제적인 교육수요자인 여성이 배제되는 문제는 다시금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거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성차별적인 남성우월주의를 강화하는 식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최근 여성을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 도시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일변도의 농정에 내재되어 있는 농촌여성에 대한 차별성과 배제는 농촌여성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권태환과 장경섭, 1995: 33). 2010년 진안군의 환경농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340명이 등록하였는데 그 중 여성은 10%에 불과하다.<sup>23)</sup>

우리 농업의 특성상 농업생산은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족농이 중심이

21)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재산등록을 이슈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합리적 젠더레짐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22) 이 밖에 여성농업인의 성평등실현과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최근의 논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노동가치평가, 농가도우미와 같은 복지제도의 확대, 교육과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방안 등이 있다.

23) 진안군 농업기술원 자료

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의 농업은 가족노동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농가에서 주요 노동력인 여성인력의 질과 양이 농업경영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정책에서의 성별분리는 여전히 남성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박민선·임찬영, 2007:71-72). 농업인력의 여성화 경향과 전문화에 따라 영농기술요구가 급격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영농기술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농가의 소득확대를 위해서 농가의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농업관련 전문기술 및 농기계사용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임찬영 외, 2006: 159)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비합리적 젠더레짐은 농업생산성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주요 농업인 단체들은 농업생산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갖는 단체는 모두 남성들로 구성되고 가정영역과 관련된 단체는 모두 여성들로 구성되는 식으로 젠더레짐에 의한 성별분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요 농업인 단체로는 농촌지도사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4-H 연합회 그리고 각 품목단체 등이 있다. 그런데 농업생산과 관련된 조직의 성격이 강하며 영향력을 갖는 농촌지도사회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대로 가정생활 개선과 관련이 있는 생활개선회의 회원은모두 여성들이다. 다시 말하면 농촌집단이 형식적 조직이건 자생적 조직이든지 간에 성별분리가 되어 있다. 이러한 성별분리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배제와 차별 그리고 지배를 내포한다. 경제적인 활동이 중요시여겨지는 한 생산과 관련된 활동과 그 조직의 성원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성의 배제는 물론 그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의 열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진안군의 경우, 농촌지도사회의 회원은 2009년 기준으로 310명인데 회원 모두가 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800명의 회원 모두 여성이다. 주로 젊은 농업인들로 구성된 농업경영인회의 회원수는 587명인데 영농후계자들이 대부분이다. 농업경영체의 소유자나 대표자는 남성이 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농업경영인회의 회원 중 여성회원이 97명으로 전체의 16.5%나 된다. 여기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 부부가 동시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서 이다. 왜냐하면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가입할 경우 사업별로 용자금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농업노동력의 임금을 살펴볼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임금에서의 성별차이는 농업 노동력의 성별분업화에 의한 차별성에서 기인한다<sup>24)</sup>. 농업노동력이 인력에 의존했던 산업화 이전에는 남성의 생산성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영농의 기계화로 인하여 그 성격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의 농업노동력에 대한 남녀차별 관행으로 인해 남녀의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농촌여성은 남성 농업노동력의 감소로 인한 대체 노동력이지만 여성의 역할로 기대되고 가사노동의 연장 같은 성격을 갖는 노동집약적이고 노동의 강도가 높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다. 반면에 남성들은 농기계의 조작이나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 농산물 출하와 같은 비교적 노동강도가 약한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sup>25)</sup>

조사지역인 진안의 W마을의 경우 남자의 하루 품삯은 60,000~70,000원이며 여자는 40,000원이다. 여성의 일은 주로 김매기나 고추따기, 매실파기 등과 같은 수확작업과 관련된 일로 노동집약적인 힘든 노동이다. 남자의 일은 주로 농업생산과 관련된 경우 노동강도가 낮은 농기계의 운용과

24) 신고전파경제학자들은 남녀의 임금차이가 남녀 간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비농업부문에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직종, 같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그것보다 훨씬 낮다. 제도학과(institutionalists)에 속한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이 성별로 분리되어 있어 여성들은 고의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이러한 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유경준, 2001: 205-217). 현재 농촌에서 농업노동이 남녀 별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관점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25)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은 도시와의 생활격차가 심해졌고 농촌의 여성들은 농업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여성들은 가장 노동집약적인 일을 담당하므로 근대기술이 발달시킨 농기계의 도입에 따른 혜택도 받지 못하고 농기계는 남자들의 일을 대체하는데 기여했을 뿐이다. 복합영농이라는 상업농의 발달은 농촌여성의 노동력을 농한기가 없는 노동으로 만들었다. 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가 본격화된 1970년 대 후반부터 농촌여성의 1년간 총 노동시간은 남성의 그것보다 길다. 1980년대가 되면서 여성은 품앗이 노동에서도 남성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다. 1980년 대 후반부터 시작된 개방농정과 전업농육성정책은 농촌을 더욱 자본주의화에 편입시켰으나 농업의 생산성은 떨어져 농가부채는 증가하고 농촌은 더욱 피폐하였으며 젊은 여성의 농촌이탈로 인한 농촌여성의 노령화로 노동강도는 더 커졌다.” (조희금, 2002:85).

관련된다.

남녀의 성차별적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같은 노동이나 직무에 투입될 경우 임금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차별의식에 의한 임금차이가 존재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2010년 7월1일 W마을의 마을회의에서는 마을공동작업에 대한 보상 임금을 결정하였다. 당시 회의에서 처음에는 이장(여성 이장)이 남자 일당 50,000원과 여자 일당 40,000원을 제안하였는데 회의에 참석한 남성들의 반발로 거부되었다. 남성들은 ‘왜 여성은 농업노동 품삯을 다 쳐주면서 남자는 안 그러느냐, 그리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 일당이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느냐....’고 불평하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남성들의 항의의 초점은 관행적으로 정해진 남성품삯의 기준보다 제시한 남성품삯의 금액이 적으며 여성과 비교해보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여성과의 불공평에 대한 기준은 일의 성격이나 노동의 강도의 차이, 숙련된 노동으로서 기술적인 차이, 작업에 따른 위험성의 차이 등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관습적인 남녀 노동임금의 차이라는 관행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집단적인 반발로 인하여 결국 남자부역자는 일당 50,000원으로 하고 여자부역자는 일당 3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마을공동작업은 주로 마을경관과 관련하여 꽃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들로 여성의 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격의 일이라도 남성이 참여하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차별적으로 책정된 것이다.

## 2. 마을공동체에서의 젠더레짐과 여성의 배제

일반적으로 지역집단에서 여성이 집단 내 사회자본 축적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레짐으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자본 축적에 대한 기여도는 평가절하되며 왜곡되는 현상이 농촌의 마을공동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마을공동체에서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볼 때, 전통적으로 마을공

동체에서 리더십은 남성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이었다. 공동체의 대표자는 나이에 의해 또는 성별에 따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규범에 의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다.<sup>26)</sup>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의 경우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관습에 의해 남성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전형적인 남성 리더십의 전유물이었다. 여성은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남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로 생각하여 마을공동체의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 개인으로서 남성은 여성보다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마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이 지역공동체에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동체의 대표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의식과 결합되어 나타난 전통적 젠더레짐의 표현방식이기도 하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각 마을의 대표자는 거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여성 마을 대표자가 있다면 그 경우 이장집단 내의 공동행사나 친목의 모임 등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젠더와 관련된 문제로 이장집단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 여성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기 쉽다. 남성들만으로 구성된 집단의 경우, 여성을 쉽게 배제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장집단을 포함한 행정체계에서 남성 중심으로 의사결정과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젠더관행을 이용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즉 성차별적인 행정의 편의성이 있을 수 있다.

진안군의 경우 진안군내 이장의 성별 구성비를 보면 알 수 있다. 2010년 6월 현재 진안군의 마을 대표인 이장의 수는 모두 294명이며 이 중 여성은 단지 6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288명은 남성이다.

면접한 진안군 W마을의 여성이장에 의하면 처음에 자신이 마을의 대표로 뽑혔을 때 마을 남성들의 우려 섞인 말과 여성편하적인 말이 많았다고 한다. 즉 마을 남성들로부터 ‘여자가 뭐를 알아서 앞에 나서나’ 또는 ‘이장은 남자가 해야지’ 등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여성이장은 자신이 마을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하였다. 이 마을에서 여성이 이장이 된 이유 중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성 동년배들의 권유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26) 전통적 지배

동네 안에서 서로 간에 접촉 기회도 더 많고 동네 돌아가는 사정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여자가 이장이 된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다는 논지였다.

“제가 이장을 하겠다고 나서자 마을사람들 특히 남자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동년배들이 몇 있는데 그들이 어렵더라도 한 번 이장을 해보라는 권유도 있고 해서 이장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들이 마을사정을 더 잘 아는데 여자라고 이장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저를 앞장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사람들이 제가 이장이 된 것에 대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잘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여,W마을 이장,OO세).

진안군의 M마을의 경우 마을회의를 두 번 관찰한 결과 마을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성들이었다. 마을회의는 마을공동체의 대부분의 안건들을 토의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여성들에 의한 결정사항은 그녀의 남편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소득과 관련된 일이거나 마을사업 같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마을일에 대해서는 남성의 권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여자들은 여자들의 일이라고 생각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결정할 때 여자들이 모여서 회합을 갖고 마을의 사업과 같은 중요한 일은 남성이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결정을 합니다” (마을주민 Y의 말).

이 마을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수가 많아서<sup>27)</sup> 여성들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대부분의 마을 내 활동을 여성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자원의 도입에 의한 마을개발사업과 같은 일들은 남성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여성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이 마을에서 여성들이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는 마을잡초제거, 마을회관청소, 마을손님접대를 위한 음식장만, 마을공동 유람 시 음식준비 등이다. 반면, 남성들이 주로 결정하는 일들은 마을사업과 관련된 경제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즉 공식적인 일에

27) M마을의 전체 34가구 중에서 남성단독가구주는 없으며 순수하게 여성 단독 가구주의 수는 10가구이다. 이 마을에는 111명이 살고 있다.



관련된 경우는 남성이 개입하고 비공식적인 일들에 관련해서는 여성들 간의 정보교환이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sup>28)</sup> 이는 마을 내의 실제적인 활동들이 여성들간의 관계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결국 권력의 중요 요소인 경제적인 자원의 결정과정은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어 여성은 주변적 위치에 머무르는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마을회의에 주로 참석합니다. 이장이 이장회의를 갔다 와서 결과 보고를 할 때, 술먹이날 행사를 위한 음식을 장만할 때, 마을손님 접대를 위한 음식을 준비할 때, 마을에서 공동으로 놀러가는 일을 상의할 때, 마을회관을 청소할 때, 마을주변 잡초를 제거할 때 등과 같은 것은 여자들끼리 회의하여 결정하고 여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M마을 이장)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마을공동체 내에서의 성원 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하여 성원들 간의 상호신뢰관계를 공고하게 구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내의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 내에서의 여성들의 사회적 자본축적에 대한 기여도가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연결망에 의한 사회적 관계는 남성의 역할로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사업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성들이 결정하고 있으며 마을의 외적인 대표성은 역시 남성의 역할로 간주하고 있어서<sup>29)</sup>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전통적 젠더레짐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M 마을공동체에서 합리적인 젠더레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큰 여성이 마을의 대표자가 되고 공동체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도 여성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현재 M 마을의

28) Lowndes (2000:534) 은 콜만과 퍼트남의 사회자본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남성중심적인 집단이나 결사체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남성은 공식적인 조직 활동 분야에서 여성은 비공식적인 조직의 활동영역에서 사회자본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Cox, 1995; Edwards, 2004; Lowndes, 2000; Karen Healy, 2007에서 재인용).

29) 진안군의 이장 중 여성은 2%에 불과하다.

대표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 젠더레짐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어떤 여성이 마을의 대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30)</sup>

진안군 W마을의 마을회의를 관찰한 결과 마을의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은 주로 남성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이 그 회의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거의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관찰당시 이 마을회의에 참석한 남성은 13명이었으며 여성은 4명으로 전체 회의 참석인원의 23.5%였으나 한 번도 회의안건과 관련된 의견을 내지 않았다.<sup>31)</sup> 이 마을은 남성중심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남성과 여성들이 내면화한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여성의 문제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배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sup>32)</sup>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운동과 관련한 민간조직의 경우도 그러한 사정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 조직의 구성원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고 정기회의에서 여성은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아서 주요 안전에 대한 처리는 남성중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sup>33)</sup>

조사지역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로 진안군이장단협의회를

30) 여기서 좀 더 상세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M 마을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마을의 대표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마을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대학을 나왔으며 마을축제 기간 중에 보여준 활발한 활동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한 학습모임에서 보여주는 탁월한 능력을 고려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 마을의 현 남성이장은 40대 초반의 고졸학력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늦은 나이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는 인적자본과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얻는 신뢰(사회자본)에 의한 정당성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31) 연구자들은 2010년 5월 14일 본 마을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주요 안건으로는 마을도로 확장사업 및 마을공유재산인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론과 그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다.

32) 한국의 언론의 젠더에 대한 담론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보수성향의 신문이나 진보성향의 신문 모두 여성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가부장적 여성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기사의 작성은 주로 남성에게 의해 이루어지며 그 언론 조직은 남성의 가치판단이 반영된 남성편향적 뉴스프레임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훈순, 2004).

33)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는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 이 협의회의 마을만들기 추진위원장은 마을을 대표하는데 30개 마을의 대표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28명은 남성이고 여성은 단 두 명뿐이다. 이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들 수 있다. 이 공식조직의 구성원은 모두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sup>34)</sup> 한 달에 한 번씩 군수를 만나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지자체의 핵심조직의 하나이다. 남성과 여성의 절대적인 비율의 차이는 젠더레짐이 작용한 결과이며 지자체의 정책논리 속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젠더 이데올로기나 젠더관행(gender practices)을 엿볼 수 있는 젠더정책<sup>35)</sup>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역공동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부응하는 사회진출의 기회가 차단되어 여성의 사회적 권력 또는 권위의 표상이 젠더레짐에 의해 제약되는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3.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에서의 젠더문제

현대에 있어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재구조화 할 수 있는 학습과 교류가 중요하다. 공동체 성원의 인적자본은 공동체의 기초 위에 성숙된 통합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 공동체의 통합성의 기반이 없다면 개인 중심적(아노미)인 발전만이 있을 뿐이다(송인하, 2010).<sup>36)</sup> 인간적 유대와 공동체의 회복에 기초한 마을만들기운동은 지역의 특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원칙과 실천이 성공의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김영정, 2006: 19).

개인과 지역공동체는 마을만들기운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만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성원으로서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배려, 양성평등을 포함한 인간의 평등에 대한 가치관 등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34) 진안군의 경우 2010년 진안군 이장단협의회에 속해 있는 이장의 수는 22명인데 그 중 여자가 한 명도 없는 남성중심의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의 성원들은 행정면 사무소에서 추천된 이장들로 구성된다.

35) 젠더정책이 작용한 또 다른 예로는, 오랫동안 주류 교육정책분야에서도 젠더의 문제는 주요 정책의제로 고려되지 않았다. 젠더의 문제는 199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한편에서 그 동안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책의제로 상정하려고 노력했으나 그것이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의 공식의제로 채택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민무숙, 2002:91).

36) 2장 3절의 논의를 참고할 것.

진안군의 경우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의 하나인 마을만들기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성원들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남녀평등에 기초한 민주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위한 교육과 사회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젠더레짐의 문제가 고려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2009년 진안군 마을축제기간 동안에 ‘마을만들기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학습교류의 성격을 지닌 이 대회는 9개 학습군 20개 분과로 구성되었다. 학습 분과는 마을신문, 마을홈페이지, 공동체라디오, 마을도서관, 마을만들기와 갈등관리, 한글글쓰기캠프, 마을생태자원찾기, 마을문화자원찾기, 진안마실길, 농촌문화활동강화, 전통술담기, 귀농과 건축, 마을 건축, 건축과 공동체 형성, 생태공동체, 기후변화농민대책반, 에너지자립마을, 농촌마을사회적기업, 농촌마을다문화가정, 학교급식조례,무진장체험마을 네트워크, 마을만들기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2009년 진안군마을축제 기간 동안에 열린 학습교류회에 956명이 참가하였다(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 2009:3).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는 이 대회의 개최의 목적을 농촌형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학습행사, 지역 풀뿌리 역량 강화와 전국 네트워크 구축,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한 마을만들기 민관협력체계 모델 제시 등에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2009:16).이 기간 동안에 열리는 다양한 분야의 학습교류는 지역주민들의 가치관의 재조직화에 기여하고 있다. 즉 전문가적인 성격의 학습교류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역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교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20개 분과 중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은 진안군마을만들기운동에서 성차별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자체 차원의 농촌지역사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내용별로 크게 나누어 보면 농업관련 기술교육, 농업경영에 관련된 교육,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그리고 평생학습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대상자 선정은 피교육자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피교육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체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그 교육과정에 젠더평등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에 마을만들기운동은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 교육의 장(場)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진안의 마을 간사제도는 지역에 인재를 충원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지만, 장차 지역 구성원이 될 간사들의 가치관을 재구조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마을간사의 교육내용은 선진지의 견학, 강연회, 마을 간사활동에 대한 보고회, 마을사업비 집행요령 등을 담고 있다. 여기서 선진지 견학이나 각종 강연회는 실제로 간사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시키려는 교육 목적이 있다.

2009년 마을간사 25명 중 여성은 5명이고 나머지는 남성이다. 간사를 위한 교육과정에도 역시 성차별해소를 위한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sup>37)</sup>

또한 마을공동체 가치관의 재구조화 과정으로서 중요한 현상으로 진안군마을축제를 꼽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하여 마을성원들의 가치관의 재구조화를 꾀하고 해체되어가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기능하고 있다.

마을축제는 마을 별로 진행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 전통적인 내용을 복원하는 축제와 현대적으로 마을에 맞게 새로 기획한 것이 있다. 술땀이 행사, 용왕제, 단지봉 축제, 산골 천렵체험, 옛날 시골체험 등은 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마을행사를 복원한 것이고 모깃불 음악회 같은 것은 현대적인 정서를 반영해 기획된 마을축제이다(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 2009).

2009년 진안군마을축제에는 많은 외부인들이 참여하는데 10일 간의 축제기간 중에 마을방문객은 10,904명이었다. 마을주민들은 외부인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하게 된다. 외부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을 여성들이 모여 많은 양의 음식준비를 해야 하므로 여성들은 고단하기 마련이고 자연히 마을축제를 꺼리게 된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장만이 가장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의 남성의 참여는 극히

37) 본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해당 남성공무원이 기획하였다.

제한되어 있다(송인하, 2010).

이상과 같이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운동에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젠더 관점에서 보면 그것과 관련된 평등권 실현을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비합리적 젠더레짐이 존재하는 현실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전통적 젠더레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암묵적 행동은 곧 그것들을 당연시하고<sup>38)</sup>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진안군의 신활력사업<sup>39)</sup>에서도 성평등 측면에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사업은 없으며, 실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성평등적 사업을 수행한 것은 매우 빈약하고 제한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장미경, 2008: 325).

## 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볼 때 현재 농촌의 마을공동체에서는 젠더레짐이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남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마을만들기사업같은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에서도 다양한 사업프로그램과 제도, 행사의 과정에서 젠더의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남성중심의 일방적이고 성불평등적인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공동체운동은 그 성원들의 의식과 자산을 동원시켜 그것을 어떻게 사회자본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Nan Lin, 2001:17-21; 황달기, 2004:195). 여기서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문제는 지역사회개발의 성패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공동체 성원들은 마을

38) 버거는 생활세계를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세계( social world)로 보고 있다. 당연시 여겨지는 세계는 사람들에게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외적인 실재로서 여겨지는 사회세계는 타인들과 함께 공유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그래서 거의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실재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연적 태도'에서 물러나 당연시함을 철회한다면, 그 세계의 견고성의 양태는 급격하게 변모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김광기, 2001:390-401).

39) 마을만들기운동의 재정적 지원은 상당부분 신활력사업에서 온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지도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때 마을공동사업에 따른 그들의 참여를 의무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현재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의 하나로서 마을만들기운동은 바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상향식 개발방식이다.

현재 마을공동체는 과거에 비해 해체의 과정을 겪고 있으나 마을구성원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여전히 비민주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이 팽배하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마을구성원인 여성과 남성들의 행위를 지배한다는 점은 마을공동체의 재구조화에 있어서도 재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공동체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목표설정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은 새로운 민주적 가치의 창출을 위한 조직적인 사회운동에서 주민을 교육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의 성과는 여성차별의 모순과 성역할 인식의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적절한 교육적인 수단이 동원되었을 때 나타날 것이다.

지역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성원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구조가 형성되고 개인과 지역사회차원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기획과 실행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역결사체와 지방행정조직의 협력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거버넌스가 이루어질 때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이 합리적으로 구성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민업무를 추진하는 남성지배적인 행정조직이나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에게는 성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젠더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그것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sup>40)</sup>.

효과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서 젠더불평등관행의 철폐가 우선되어야

40) 주류(mainstream) 혹은 남성(malestream)정책분석가들은 자신들의 대부분이 남성을 위하여 혹은 남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젠더 문제에 대하여 둔감하기 때문에 젠더 관련 이슈가 그들의 이론과 관심과 이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Kenway,1990 ; 민무숙, 2002:81 재인용).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관료조직에서 주류는 남성지배적이기 때문에 성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관료조직 내에서 이슈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따라서 남성지배집단에 의한 자발적인 철폐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차원에서 젠더정책의 철폐를 관료제적 행정조직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다고 본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sup>41)</sup>라는 사회결사체가 존재하고 행정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결사체는 행정조직과의 권력관계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거버넌스 형성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운동의 핵심주체인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보다 관료제적 행정조직이 우세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그리고 교육을 위한 물적자원 및 교육 전문가의 동원은 행정관료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공동체재구조화운동에서 사회결사체의 역할은 약화되고 행정의존적인 관치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의 지속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 새마을운동과 같은 하향식 발전모델과의 차별성이 없게 되며 다만 형식적으로 상향식 발전전략만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에서는 지역사회결사체에서 주관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을 통해 성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운동은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닌 마을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할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결사체에 대한 행정의 배려가 필요하며 행정조직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사회조직운동의 가치와 그 운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젠더평등의 실천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단체와의 교류도 필요하다. 사회운동단체는 많은 전문가가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이 실행될 때 학습

41) 약 40여 개의 마을대표들로 구성된 사회단체이다.



효과는 배가되며 지역성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불평등한 젠더레짐의 철폐는 합리적 젠더레짐의 제도화가 달성됨을 의미하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할 것이다.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은 지역주민과 함께 가야하는 긴 여정이다. 그것의 성공은 공동체성원들이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 의식화되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마을공동체 내에서의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자본의 축적의 기여도가 높은 여성이 공동체 외부와의 연계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결국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움직일 때 지역사회의 성장이 보다 민주적인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적 성과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지역발전사업의 정책과 프로그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은 공동체재구조화운동에서는 무엇보다도 젠더의 관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용배(2003). 지역사회 정체성과 사회자본형성 요인분석-지역사회 공동체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2호, 한국정책과학학회, pp.189-215.
- 강혜정(2008).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Vol.31, No.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69-81.
- 권미정(2003). 현장에서 1 : 여성은 노동운동의 주변인?, 노동사회, Vol.7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권태환 · 장경섭(1995). 한국 가족농 재생산 체계의 위기-가족 주기별 분포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1호, 한국인구학회, pp.1-39.
- 김경미, 최윤지, 조현숙(2001).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시론적 접근, 亞細亞女性研究 第40號,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김경미, 유소이, 최윤지, 조현숙, 이한기(2003).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앞으로의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김경희(2010). 지역발전정책에서의 성주류화, 국가와 젠더-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이재경 외, 서울:한울. pp.268-313.
- 김광기(2001). 당연시되는 세계와 자기 기만- 일상성에 대한 피터 버거의 현상학적 사회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18집, 한국현상학회, pp.388-416.
- 김대영(2004). 박정희 국가동원 메커니즘에 관한연구-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61권, 한국산업사회학회, pp.184-221
- 김영정(2006).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발견-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pp.2-21.
- 김영혜(2004).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 유배우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영향에 대하여, 한국인구학 제27권 제1호, pp.1-30.
- 남상화(2009). 사회자본 논의 맥락에서 본 권력의 정당화, 2009 서울행정

- 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발표논문집(上), 서울행정학회.
- 남영우(1997). 도시재구조화와 젠더(gender), 대한지리학회보 제55호, 대한지리학회, pp.1-14.
- 농촌진흥청(1999). 시간으로 본 농가부부의 생활. 농촌진흥청.
- 박민선·임찬영(2007). 여성농업인 인구 추계와 정책적 함의, 농촌사회, Vol.17, No.1, 한국농촌사회학회, pp.69-90.
- 박수미·정진주·박선영(2005). 젠더문제와 여성의 노동참여 - 노동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희봉·이희창(2006). 여성 사회자본 형성 특징과 결과 - 한·일·중 3국의 여성 사회자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년 동계학술대회, 2006. 1, pp.125-152.
- 송인하(2010). 마을공동체운동의 성공조건과 과제 : 진안군 사례, 2010 지역사회학회 춘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지역사회학회, pp.143-175.
- 심재진(2002).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문제에 대한 고찰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과 "차별의 정의" 조항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Vol.2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pp.115-148.
- 원숙연(2002). 젠더-정책 레짐(gender-policy regime): 의미와 쟁점,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pp.537-552.
- 원숙연(2004). 여성정책의 실질적 기능화 -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pp.102-119.
- 유경준(2001). 성별 임금격차의 차이와 차별, 한국개발연구, Vol.23, No.1,2, 한국개발연구원, pp.195-231.
-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편역(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출판사.
- 유소이·최윤지·조현숙·김경미(2003).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관한 연구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대한가정학회지, Vol.41, No.7, 대한가정학회, pp.69-81.

- 유해미(2006). 젠더 차원에서 본 경제적 세계화의 두 얼굴: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 한국사회학회, pp.233-257.
- 유현숙(2005). 여성자본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여성의 인적자본 · 사회자본 · 심리적 자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2005년 제44집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pp.225-259.
- 유현숙 · 곽현근 · 배지연(2006). 여성의 동네사회적자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22권 2호, pp.315-337.
- 이민주(2004). 아젠다 특성에 따른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택적 수용과 배제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통시적 비교연구, 2004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회, pp.313-327.
- 이선미(2004). 여성의 시민참여와 사회자본: 자원결사체 참여의 성별분리, 한국여성학 제20권 1호, 한국여성학회, pp.163-193.
- 이수애(1993). 도서지역 농어민의 생계유지 전략과 성별분업 - 소안도를 중심으로 -, 도서문화, Vol.1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pp.333-374.
- 이재경 엮음(2010). 국가와 젠더: 성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서울: 한울.
- 임찬영 · 최윤지 · 김경미 · 이진영(2006).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기여도와 기여도에 대한 인적자본요소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Vol.44, No.3, 대한가정학회, pp.153-161.
- 장경섭 · 오세란 · 이연주 · 김동훈 · 이상영(2004).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1-49
- 장경섭(2009). 가족 · 생애 · 정치경제 - 압축성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장미경(2008). 신활력사업의 민주성과 성평등성-전북 진안의 '생태건강산촌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42, 호남문화연구소, pp.297-340
- 조은(2010).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모성의 정치경제학, 한국여성학 제26권 1호, 한국여성학회, pp.69-95.
- 조희금(2002).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및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pp.75-86.
- 하민철(2009). 환경보호 운동,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 공동체 형성 - '산남

- 두꺼비마을'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pp.1790-1806.
- 허미영, 박민선(2003).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실태와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 허창수(2004). 한국 교육에서의 젠더 평등과 공평—여성 연구에 대한 개념 확장의 필요성—,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교육사회학회, pp.119-246.
- 황정미(2001).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1960~70년대 한국 부녀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 Giddens(1973). Central problems in social problems, U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윤병철.박병래 역, 사회이론의 주요 쟁점(1991). 문예출판사
- A. Giddens(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 이윤희,이현희 역(1991). 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 A. Giddens(1991).Modernity & Self-Identity: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권기돈 역(2010).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 Bourdieu, Pierre(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skin Robert J. et al.(2001). Building Community Capacity. New York : Aldine De Gruyter.
- Chaskin Robert J.(1997). "Perspectives on Neighborhood and Community: A Rea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ervice Review, 71(4), pp.522-548.
- Chaskin Robert J.(2001). Building Community Capacity: A Definitional Framework and Case Studies from a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 Urban Affairs Review, Vol. 36, No. 3, pp. 291-323.

- Cox E (1995). A truly civil society, 1995 Boyer lectures, Sydney, 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
- Edwards R (2004). Present and absent in troubling ways: families and social capital debates, *The Sociological Review* 60, pp.1 - 21.
- Karen Healy, Michele Haynes, Anne Hampshire (2007). Gender, social capital and location: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16, pp.110 - 118.
- Lowndes V (2000). Women and social capital: a comment on Hall's social capital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 pp.533 - 537.
- Max Weber(1976). *Wirtschaft und Gesellschaft*, J.C.B. Mohr(Paul Siebeck) Tübingen; 박성환 역, 1997, *경제와 사회*1, 문학과지성사.
- Max Weber(1988).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herausgegeben von Johnnes Winkelmann, J.C.B. Mohr(Paul Siebeck) Verlag Tübingen ; 막스 베버 지음, 엄동훈 옮김, 2003, *문화과학과 사회과학 방법론*(1), 일신사.
-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편역. 2003. 『사회자본 이론과쟁점』. 그린출판사).

## Restructuring rural community from gender perspective

Lim, Choonhee\* · Song, Inha\*\*

This study revealed gender regime worked still as a constraint of women's social activities in spite of the high population rate and the high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of women.

Women's contribution to the social capital accumulation in rural village got far ahead of men's. However, men monopolized the representative of community in most of rural villages, because they had taken for granted the representative of an external network of village was a role of male. Judging rationally i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within a village, it is more efficient for women to make a networking with outside world on the basis of social capital in inner village.

In spite of the high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of women, outer networking of women was constrained to sex role. This phenomenon was explained by gender regime.

There were many overlapped gender inequality in the level of rural village. These supported the existence of gender regime in community.

Having been limited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network of women, successful development of community have been remained also unfulfilled. To overcome this problem and restructure community movement, community members must recognize gender problem and aim to educate democratic community members gender equally.

**Key words:** gender, gender regime, restructuring rural community

---

\* Kunsan National University

\*\* Jeonbuk National University